

雇傭職業能力開發研究  
第18卷(2), 2015. 8, pp. 141~165  
© 韓國職業能力開發院

## 보호소년의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 및 자립기술의 관계

김기홍\* · 김경주\*\*

본 연구는 보호소년의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 그리고 자립기술의 관계를 파악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우선,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자립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본 결과 교사지지와 자아존중감은 보호소년의 자립기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보호소년의 부모지지와 친구지지는 자립기술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호소년의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에 대한 상호관련성을 검증한 결과 부모, 교사 및 친구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과 자립기술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를 보면 남자는 교사지지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립기술이 높아지는 반면 여자의 경우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자립기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넷째,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과 자립기술의 관계에서의 학력별 차이를 보면 중졸 이하에서는 교사지지와 자존감이, 고교 중퇴에서는 교사지지가 자립기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고졸에서는 자립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 주제어: 보호소년, 자립기술,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투고일: 2015년 03월 30일, 심사일: 04월 21일, 게재확정일: 2015년 06월 09일

\* 제1저자(교신저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생직업교육센터 선임연구위원 (khkim@krivet.re.kr)

\*\* 제2저자, 충남도립대학교 학생생활연구센터 전임상담원 (gyeongju4547@hanmail.net)

## I. 서론

최근 법무부의 청소년 재소자의 실태조사(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3)에 따르면,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는 청소년 재소자인 보호소년은 2004년 1,804명이었고, 2013년에는 3,037명으로 다소의 증감은 있으나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보호소년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단순 노동과 무직이 약 48.4%(2013년도)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보호소년들이 소년원 퇴소 후에 이전에 행했던 범죄인 절도, 횡령, 강도, 폭력과 같은 비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계가 어려운 퇴소 청소년들은 이전의 범죄의 경험들에 의해 쉽게 재범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 범죄를 줄이고 재범화를 막기 위한 종합적인 예방대책과 보호소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유성경 외, 1999; 김진화, 2004; 안선영, 2010; 변숙영·이수경·김지수, 2013). 특히 최근 들어 보호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문제(국가인권위원회, 2005)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또 이들의 최초 범죄 연령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면서 재범의 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가 매우 중요하다(정진수·김기환·유병철·이창한, 2009).

2007년도에 법무부(소년과)는 소년원에 '소년원학교'를 설립하고 초·중등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심신의 보호지도 등을 통하여 보호소년이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보호소년법, 2014). 그러나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이 일반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소년원마다 역점을 두고 있는 직업훈련과정과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일관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또 소년원에 근무하는 직업훈련교사는 전공교육 이외의 기타 행정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학습부진이나 학습장애를 가진 보호소년에 대한 교사의 전문지식이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안선영, 2010; 김봉수·강동욱, 2012). 대부분의 보호소년들은 범죄나 비행 행위로 정규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중도탈락의 상태로 소년원학교로 오기 때문에, 개인의 정서적인 위험 요인들인 충동성이나 공격 성향, 우울이나 포기 성향, 비합리적인 기대, 반사회적인 성향, 불안, 모험심, 과잉 행동, 주의

력 결핍장애, 품행 장애 등의 위험 요인들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권지은, 1998; 유성경 외, 1999; Barto & Bartol, 2012). 따라서 이들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퇴소 후 사회적응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보호소년들에게 노출되기 쉬운 정서적 위험 요인들로 인하여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에 매진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이러한 보호소년들은 불투명한 자신의 미래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범죄의 유혹에 빠져 사회적응이 어려워지게 된다. 소년원에 있는 대부분의 보호소년은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배제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자녀가 많다는 점에서 보면, 이들 보호 소년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변의 사회적지지와 보호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 체제와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보호소년의 자립기술은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응능력과 자립생활, 즉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또한 능률적으로 해내는 기술의 방법이나 수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자립기술에 대한 국내 연구는 보호소년 및 시설청소년을 포함하는 위기청소년의 자립기술에 대한 운영 실태나 사회재적응프로그램 및 진로개발에 관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김대권, 2010; 김봉수 외, 2012; 박은선, 2004; 변숙영, 2013; 안윤숙, 2012). 위기 청소년 자립기술 분야에서는 성별, 가족 유무 및 가족과의 연락유무, 진로결정 여부 등 특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변숙영, 2013)가 나타나고 있고, 자립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심리정서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장경희, 2008)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보호소년의 개인적 특성 및 성장단계의 특성에 따른 심리·정서적 특성과 사회적 지원을 고려한 실증적 조사와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보호소년에게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소년원 생활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중요한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보호소년의 학력이나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와 보호소년의 자립기술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보호소년의 자립기술과 심리적, 사회적지지 변인과의 관련을 검증해보고, 자립기술과 관련된 성별, 학력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여 보호소년의 자립기술 촉진에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보호소년 자립기술의 개념

보호소년 자립기술이란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사회적응능력 즉 일상생활을 능률적으로 해내는 방법이나 수단을 의미한다. 그 중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는 청소년을 보호소년이라 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의미한다(소년법 제1장 제2조, 제2장 제3절 제4조).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수용당한 시기에 도달한 22세가 되면 퇴원시킨다(보호소년법 제5장). 따라서 보호소년이 소년원에 수감되는 시기는 만 19세에서 개인적 특성에 따라 만 22세까지가 될 수 있다. 사회적응능력은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심신의 보호·지도 등을 통한 보호소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의미한다(보호소년법, 제4장 제28조). 그러나 어떠한 능력을 보호소년 자립기술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왜냐하면 청소년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통해 사회적응능력을 길러야 하지만, 보호소년의 경우 사회로부터 격리 수감된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나 편견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정서와 편견들은 보호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에 따라 각기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소년원에서 자립기술을 가르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보호소년에게 필요한 자립기술의 개념은 인간의 독립된 상태, 자립생활, 성공적인 사회 정착과 관련하여 설명되기도 한다(노혁, 2004; 변숙영 외, 2012; 양숙미, 2006). 여기서 독립된 상태란, 아동들이 보호자를 떠나 성공적인 상호의존의 성취로 자신의 '독립된 상태'를 이끌어 가는 것을 말한다(변숙영 외, 2012). 그리고 자립생활은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주거생활과 일상생활기술의 활용 측면에서 기능적이고 전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도움 없이 스스로 결정하고 생활해 나갈 수 있는 기반(양숙미, 2006), 또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통제하고 이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노혁, 2004). 성공적인 사회정착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독립된 상태'를 이끄는 것으로 개별적 '독립'이라는 의미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와

지역사회 자원을 잘 활용하여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심리적·사회적·경제적 독립 상태를 의미한다(신혜령, 2001).

이러한 의미론적인 맥락에서 볼 때, 보호소년의 자립기술은 '소년원에 수감되어있는 청소년 재소자들이 소년원으로부터 퇴원하여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도움 없이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감으로써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소년의 자립기술에는 보호소년이 자기주도적으로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모든 차원의 사회적응 능력들을 포함한다. 보호소년 자립기술은 일상생활기술, 자기보호기술,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돈 관리, 주택(생활할 장소 찾기), 교육과 훈련, 일자리 찾기, 건강과 복지,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인 능력 개발,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법률상의 권리와 책임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Ansell, Morse & Nollan, 2004).

## 2. 보호소년의 실태와 자립기술의 관계

보호소년의 자립기술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인구학적 특징, 범죄경력, 범 죄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이태수, 2001; 장경희, 2008). 이를 위해 최근 보호소년에 대한 실태, 즉 수용인원, 성별, 연령층별 비행 내용 등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2013)에 따르면 보호소년의 연간 수용인원은 1994년 3,192명이었으며 2005년 1,543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3년에는 3,037명으로 나타났다. 남자 수용인원은 1994년 3,061명이었으며 2005년 1,395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13년에는 2,666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수용인원은 1994년 131명이었으며 2009년 438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13년에는 371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1994년 이후 현재까지 보호소년의 수용인원은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5년 현저히 감소한 후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1&gt; 보호소년의 연간 신수용인원 및 1일 평균 수용인원 (1994년~2013년)

(단위 : 명, %)

| 연도   | 구분 | 신수용인원      |            |          | 1일평균<br>수용인원 |
|------|----|------------|------------|----------|--------------|
|      |    | 계          | 남자         | 여자       |              |
| 1994 |    | 3,192(100) | 3,061(100) | 131(100) | 2,149(100)   |
| 2000 |    | 2,931(92)  | 2,750(90)  | 181(138) | 2,197(102)   |
| 2005 |    | 1,543(48)  | 1,395(46)  | 148(113) | 1,464(68)    |
| 2008 |    | 1,732(54)  | 1,415(46)  | 317(242) | 1,161(54)    |
| 2009 |    | 2,775(87)  | 2,337(76)  | 438(334) | 1,191(55)    |
| 2010 |    | 2,822(88)  | 2,404(79)  | 418(319) | 1,162(54)    |
| 2011 |    | 2,960(93)  | 2,534(83)  | 426(325) | 1,264(59)    |
| 2012 |    | 3,429(107) | 2,994(98)  | 435(332) | 1,390(65)    |
| 2013 |    | 3,037(95)  | 2,666(87)  | 371(283) | 1,380(64)    |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통계, 내부자료.

주 : ( )안은 지수. 기준년도는 1994년을 100%로 한 것임.

'13년 통계 항목 기입(일정 시점 기준일 경우 '13.12.31. 기준)

또한 남자 수용자가 여자 수용자 보다 7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2013년 기준), 남자 청소년들이 무모한 행동에 더 많이 관여하는 것은 테스트스테론과 모노아민 산화억제제(MAO)가 증가하여 감각추구성향 증가를 유도하여 나타난다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Arnett, 1992; 한상철·이수연·임순선·류수현·김우철, 2012, 재인용). 또한 여자 수용자는 1994년 이후 3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여자 비행 청소년들의 증가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층별 비행유형을 보면, 16세 이상~18세 미만 집단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보호관찰위반이 가장 많았다. 16세 이상~18세 미만의 보호소년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그 수가 많아 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하기 쉽지 않으나, 16세 이상~18세 미만 집단이 강도·살인, 성폭력·강간, 성매매·성보호, 유해화학, 도로·교통위반, 보호관찰 위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14세 이상~16세 미만과 18세 이상~19세 미만의 비행유형을 비교해보면, 절도·횡령, 성폭력·강간, 도로·교통사고는 14세 이상~16세 미만 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강도·살인, 폭행·상해·협박, 성매매·성보호, 보호관찰위반은 18세 이상~19세 미만 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연령층에 따라 비행유형

이 다른 편이고 특히 보호관찰위반의 경우 16세 이상~18세 미만의 보호소년이 45.2%로 높게 나타났다.

<표 2> 보호소년의 연령층별 비행내용 (2013년)

(단위 : 명)

| 연령<br>비행유형 | 계          | 14세 미만  | 14세 이상<br>16세 미만 | 16세 이상<br>18세 미만 | 18세 이상<br>19세 미만 | 19세 이상  |
|------------|------------|---------|------------------|------------------|------------------|---------|
| 계          | 3,037(100) | 54(1.8) | 697(23.0)        | 1,533(50.5)      | 723(23.8)        | 30(1.0) |
| 절도·횡령      | 871(100)   | 26(3.0) | 216(24.8)        | 481(55.2)        | 148(17.0)        | -       |
| 강도·살인      | 53(100)    | -       | 9(17.0)          | 30(56.6)         | 14(26.4)         | -       |
| 폭행·상해·협박   | 350(100)   | 7(2.0)  | 68(19.4)         | 169(48.3)        | 106(30.3)        | -       |
| 성폭력·강간     | 184(100)   | 7(3.8)  | 44(23.9)         | 92(50.0)         | 41(22.3)         | -       |
| 성매매·성보호    | 143(100)   | 3(2.1)  | 31(21.7)         | 75(52.4)         | 34(23.8)         | -       |
| 유해화학       | 13(100)    | -       | 6(46.2)          | 7(53.8)          | -                | -       |
| 도로·교통사고    | 90(100)    | -       | 16(17.8)         | 60(66.7)         | 14(15.6)         | -       |
| 보호관찰위반     | 1,037(100) | 6(0.6)  | 237(22.9)        | 469(45.2)        | 295(28.4)        | 30(2.9) |
| 기타         | 296(100)   | 5(1.7)  | 70(23.6)         | 150(50.7)        | 71(24.0)         | -       |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통계, 내부자료.

주 : ( ) 안은 분포백분율, 비행유형 분류는 형법, 특별법 모두 포함. '기타'는 방화,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임. 단, '19세 이상'은 임시퇴원 취소자 인원임.

청소년 자립기술에 대한 국내 연구는 보호소년 및 시설청소년을 포함하는 위기청소년의 자립기술, 사회재적응프로그램, 진로개발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김대권, 2010; 박은선, 2005; 변숙영, 2013; 변숙영·이수경·김지수, 2013; 안운숙, 2012). 보호소년에 대한 자립기술과 연관된 직업훈련에 대한 연구인 변숙영·이수경·김지수(2013)의 '소년보호기관 직업훈련 실태 및 개선 방안'에서 보면 소년원 출원 시 자립을 위한 효과적인 직업교육 및 훈련을 위해서는 심리·정서적 지원과 함께 낮은 기초학습능력에 대한 지원, 실생활 체험 중심에서 점차적인 전문 직업훈련과 자립지원 프로그램, 맞춤형 진로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소년의 특성별 차이 검증 결과 성별, 연령, 최종학력, 가족 유무 및 가족과의 연락유무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운숙(2012)의 연구에서도 보호소년을 교화하고 교정하기 위해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관

리교육프로그램 및 치료프로그램, 진학지도 취업프로그램, 지역사회에 합류할 수 있는 사회복지프로그램 등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권(2010)의 수용생활과 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에서도 보호소년들의 재범 위험성이 높음을 강조하고 소년원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와 이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 볼 때, 보호소년의 성별, 학력 및 심리·정서적 특성과 사회적지지는 자립기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 3. 보호소년 자립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청소년의 발달은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며, 청소년들이 어떠한 환경이나 맥락에 있느냐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진다(한상철 외, 2012). 따라서 보호소년의 자립기술은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부모, 직업훈련교사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범죄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사회화 과정에 개입하는 집단이나 요소의 영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최영인·염건령, 2005). 즉, 보호소년의 범죄 행동과 관련하여서도 어려운 가정환경과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불신, 부적응, 부정적 또래관계, 낮은 자아정체감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호소년의 자립기술과 관련된 심리·정서적 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을, 지지적 관계 변인으로 부모, 교사 그리고 친구지지로 선정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는 성별과 학력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의 유무 및 연락 여부, 경제수준, 보호시설 입원 횟수 등이 보호소년의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더불어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비행 또는 위기 청소년의 자립기술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많은 선행연구에 의해 증명되었다(변숙영·이수경·김지수, 2013; 변숙영, 2013; 이미리·이명숙, 2010; 조수연, 2011). 보호소년의 경우 자립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정보 인지, 직업능력개발훈련 만족도, 진로결정 여부 등에서 성별, 학력, 가족의 유무 및 가족과의 연락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시설아동의 경우도 가정에서의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부모와 대화를 하는 정도가 다른 예측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행유무를 판단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주요변인으로 나타났다(이미리 외, 2010). 고등학교 2학년(만16세)에 해당되는 시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변속



영(2013)의 연구에서는 원가족과 연락되는 경우 지역사회자원 활용기술과 사회적 기술, 직장생활 기술의 자립기술이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는 아동들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가정은 개인의 성격형성의 원동력이 되어 자녀들에게 심신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결손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조수연, 2011). 이와 관련하여 장경희(2008)의 연구에서는 자립생활관 프로그램 중 청소년과 근무자 모두에서 부모 및 친척관계 유지 프로그램의 실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의 관계 유지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실시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이상의 연구에 기초할 때, 부모 또는 친척과의 긍정 또는 부정적인 경험들은 보호소년의 자립기술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교사와 친구지지가 청소년의 자립기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교사, 친구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고, 긍정적인 정서경험이 많을수록 학교생활적응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지은, 2000; 이진아, 2007). 특히 교사와의 인간적 연대가 잘 형성되어 있는 학생들은 범죄에 대한 유혹에 상대적으로 강한 면역성을 갖는 반면, 학업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영인 외, 2005). 따라서 보호소년의 자립기술은 교사지지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는 가족 내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아동기보다 또래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시기로 친구관계의 중요도가 증가한다(김상미·남진열, 2011). 그리고 청소년들의 친구관계는 어떠한 이권이나 이면에 대한 계획이나 계략, 술수 등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바에 대해 충실한 모습과 방향을 제시한다. 따라서 공유되어지는 분야에 대한 정보와 그 내용의 전파속도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다(Spencer, 1988; 최영인 외, 2005 재인용)는 점에서 청소년 범죄와 자립기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수용 및 존중하고, 긍정적이고 가치가 있으며, 능력이 있는 존재로 느끼는 정서이다(Rosenberg, 1985; 정지은, 2013).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비행 또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여러 발달 측면과 사회적응에 중요한 예언적 변인 중 하나이며(민원홍, 2014; 조현빈, 2003),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발달은 행동, 감정, 동기, 성취 및 대인관계에까지 영향을 주며, 인간행동의 중요한 기본동기와 관계가 있다(장휘숙, 2009)는 점에서 보호소년의 자립기술에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재비행에 관한 민원홍(2014)의 연구에서는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재비행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비행 방지를 위

해서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자립기술 증진과 같은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1년 이내 출소를 앞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주민희(2004)의 연구에서는 연령별, 학력별 생애진로분석 결과 학력에 따라 자아정체감이나 진로계획이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보호소년의 자립기술은 자아존중감 및 연령이나 학력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3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법무부의 협력 과제인 “소년보호기관 직업훈련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실태 조사와 병행하여 별도 내용으로 조사한 결과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본 연구와 관련한 설문기간은 2013년 4월 1일부터 4월 24까지이며, 법무부 소년과에서 전국 소년원에 협조 공문과 더불어 배포 및 회송을 담당하였다.

본 설문의 대상은 전국 소재 8개 소년원의 보호소년이며, 수집된 자료 381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18부를 제외한 총 36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 중 남자 재소생이 274명(75.5%), 여자 재소생이 89명(24.5%)이었다. 나이는 20세가 118명(32.9%), 21세 92명(25.6%), 19세 77명(21.4%) 순으로 20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고교 중퇴가 115명(31.8%)이며, 고교 졸업이 102명(28.2%)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학교 유예는 52명(14.4%), 초졸은 9명(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기관은 광주가 78명(21.6%), 서울 63명(17.5%), 청주 55명(15.2%) 등으로 나타났으며 표집인원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 구분   |        | N   | %    |
|------|--------|-----|------|
| 성별   | 남자     | 274 | 75.5 |
|      | 여자     | 89  | 24.5 |
| 나이   | 17     | 4   | 1.1  |
|      | 18     | 26  | 7.2  |
|      | 19     | 77  | 21.4 |
|      | 20     | 118 | 32.9 |
|      | 21     | 92  | 25.6 |
|      | 22     | 34  | 9.5  |
|      | 23     | 7   | 1.9  |
|      | 24     | 1   | .3   |
| 최종학력 | 초졸     | 9   | 2.5  |
|      | 중학교 유예 | 52  | 14.4 |
|      | 중졸     | 82  | 22.7 |
|      | 고교 중퇴  | 115 | 31.8 |
|      | 고교 졸업  | 102 | 28.2 |
|      | 기타     | 2   | 0.6  |
| 소속기관 | 서울     | 63  | 17.5 |
|      | 안양     | 32  | 8.3  |
|      | 청주     | 55  | 15.2 |
|      | 광주     | 78  | 21.6 |
|      | 춘천     | 28  | 7.8  |
|      | 부산     | 39  | 10.8 |
|      | 대구     | 39  | 10.8 |
|      | 전주     | 29  | 8.0  |

## 2. 측정도구

### 가. 자립기술

자립기술은 Ansell, D., Morse, J. & Nollan, K.(2004)가 개발한 대리보호를 받은 요보호아동의 독립생활준비정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어온 Case Family Programs를 신혜령과 김보옥(2011)이 수정·보완하여 국내시설 아동용으로 개발한 자립 및 독립생활기술척도(ACLSA: Self Sufficiency and Life Skill for Independent Living)를 사용하였다.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려는 청소년의 대부분은 시설에서 체계적인 계획과 프로그램을 제공받지 못하고, 부모를 통한 사회화 과정도 진행하지 못

하여 퇴소 후 엄청난 사회적, 행동적 그리고 교육적 결핍을 극복해야만 한다(Mech, 1994; 이해연, 외 2007, 재인용)는 점에서 보호소년의 자립기술 특성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척도는 7개의 하위영역으로 일상생활기술 문항, 자기보호기술 문항,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문항, 돈 관리기술 문항, 사회적기술 문항,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문항, 직장생활 기술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자립기술의 Cronbach's  $\alpha=0.949$ 이었다.

#### 나.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 Nolten(1994)이 개발한 것을 조수연(2011)이 수정·보완한 학생 사회적지지 척도(Student Social Support Scale)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 교사, 친구 등 청소년의 대인관계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정서적 지지 7문항, 정보적 지지 6문항, 평가적 지지 3문항, 물질적 지지 4문항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방법은 Likert유형의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지지의 Cronbach's  $\alpha=0.973$ , 교사지지의 Cronbach's  $\alpha=0.942$ , 친구지지의 Cronbach's  $\alpha=0.952$ 이었다.

#### 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85)가 개발한 것을 조현빈(2004)이 일부 수정한 자아존중감 척도 SES(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방법은 Likert유형의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의 전체적인 Cronbach's  $\alpha=0.842$ 이었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인 보호소년의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자립기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두개의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먼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IBM Statistics SPSS 21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수 간

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자립기술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AMOS 21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 V. 분석 결과

### 1. 기술통계 결과

<표 4>에 의하면,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인 부모지지와 친구지지 간에는 정적상관( $r=.411$ )이 나타났고, 부모지지와 교사지지 간에는 정적상관( $r=.402$ ), 친구지지와 교사지지 간에는 정적상관( $r=.453$ )을 보였다. 자아존중감은 부모지지( $r=.315$ ), 친구지지( $r=.352$ ) 및 교사지지( $r=.236$ ) 모두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기술 역시 부모지지( $r=.172$ ), 친구지지( $r=.240$ ), 교사지지( $r=.289$ ) 및 자아존중감( $r=.269$ ) 모두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변인 간 상관계수 및 평균, 표준편차

| 구 분   | 부모지지    | 친구지지    | 교사지지    | 자존감     | 자립기술 |
|-------|---------|---------|---------|---------|------|
| 부모지지  | 1       |         |         |         |      |
| 친구지지  | .411*** | 1       |         |         |      |
| 교사지지  | .402*** | .453*** | 1       |         |      |
| 자아존중감 | .315*** | .352*** | .236*** | 1       |      |
| 자립기술  | .172*** | .240*** | .289*** | .269*** | 1    |
| 평균    | 4.25    | 3.90    | 3.67    | 3.66    | 2.23 |
| 표준편차  | 0.85    | 0.71    | 0.78    | 0.71    | 0.31 |

\*\*\*  $p<.001$

## 2. 경로분석 결과

### 가.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자립기술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자립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참조).

〈표 5〉 경로계수

|      | 구분     | 비표준화 추정치 | 표준화 추정치 | 표준오차  | 검정통계량    |
|------|--------|----------|---------|-------|----------|
| 자립기술 | ← 부모지지 | -0.002   | -0.006  | 0.021 | -0.107   |
| 자립기술 | ← 친구지지 | 0.035    | 0.079   | 0.026 | 1.35     |
| 자립기술 | ← 교사지지 | 0.085    | 0.21    | 0.023 | 3.681*** |
| 자립기술 | ← 자존감  | 0.085    | 0.193   | 0.024 | 3.618*** |

\*\*\*  $p < .001$

첫째, 부모지지에서 자립기술로의 경로계수는 -.006이고 검정통계량은 -.107로 부적으로 영향을 주었지만, 이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친구지지는 자립기술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지만, 이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beta = .079$ ). 이에 반해, 교사지지와 자아존중감은 자립기술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경로계수는 .21, .193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지지와 자아존중감은 청소년 재소자의 자립기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며, 교사의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증가할수록 청소년 재소자의 자립기술은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보호소년의 부모지지와 친구지지는 자립기술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의 관련성

청소년 재소자의 사회적지지(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와 자아존중감에 대한 상호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지지는 친구지지( $r = .411$ ) 및 교사지지( $r = .402$ )와 정적인 관련성이 있었으며 유의미하였다. 둘째, 친구지지와 교사지지는 정적인 관련성이 있었으며 유의미하였다( $r = .453$ ). 셋째, 부모지지와 자존감( $r = .315$ )은 정적인 관련성이 있었으며 유의미하였다. 넷째, 교사지지와 자존감은 정적인 관련성이 있었으며 유의

미하였다( $r = .236$ ). 다섯째, 친구지지와 자존감은 정적인 관련성이 있었으며 유의미하였다( $r = .352$ ).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회적지지 모두 자아존중감과 상관관계를 지니며 이는 부모, 교사 및 친구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지지를 많이 받은 청소년 재소자들이 사회적지지를 적게 받은 청소년 재소자들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자립기술을 설명하는 비율은 약 13%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경로모형의 전체 적합도는 계산되지 않았다. 이는 분석모형에서 모든 변수사이의 관계가 설정된 포화모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모형의 카이제곱값도 0이었고, 적합도 지수도 완벽한 적합도 값인 1로 산출되었다.

<표 6> 경로계수

| 구분          | 비표준화 추정치 | 표준화 추정치 | 표준오차  | 검정통계량    |
|-------------|----------|---------|-------|----------|
| 부모지지 ↔ 친구지지 | 0.247    | 0.411   | 0.034 | 7.248*** |
| 부모지지 ↔ 교사지지 | 0.264    | 0.402   | 0.037 | 7.117*** |
| 친구지지 ↔ 교사지지 | 0.25     | 0.453   | 0.032 | 7.873*** |
| 부모지지 ↔ 자존감  | 0.19     | 0.315   | 0.033 | 5.731*** |
| 교사지지 ↔ 자존감  | 0.13     | 0.236   | 0.03  | 4.382*** |
| 친구지지 ↔ 자존감  | 0.178    | 0.352   | 0.028 | 6.338*** |

\*\*\*  $p < .001$

### 3. 남녀 집단 결과

#### 가. 남녀 집단의 기술통계 결과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 그리고 자립기술의 관계에 있어서 성별에 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수집된 자료를 남녀 집단으로 나눠서 분석하였다. <표 7>의 결과를 보면, 교사지지와 자아존중감 그리고 자립기술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지지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다소 높고 친구지지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lt;표 7&gt; 남녀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

| 성별            |      | 부모지지 | 친구지지 | 교사지지 | 자존감  | 자립기술 |
|---------------|------|------|------|------|------|------|
| 남자<br>(n=274) | Mean | 4.29 | 3.86 | 3.67 | 3.68 | 2.23 |
|               | SD   | 0.82 | 0.70 | 0.75 | 0.72 | 0.31 |
| 여자<br>(n=89)  | Mean | 4.11 | 4.04 | 3.68 | 3.62 | 2.24 |
|               | SD   | 0.92 | 0.71 | 0.85 | 0.70 | 0.33 |

### 나. 남녀 집단의 경로분석 결과

남녀를 집단으로 나눈 후 경로분석을 한 결과 남녀 모두 부모지지(남자  $\beta=.004$ , 여자  $\beta=.011$ )와 친구지지(남자  $\beta=.095$ , 여자  $\beta=.038$ )는 자립기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남자 집단의 경우 교사지지는 자립기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나( $\beta=.242$ ) 여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beta=.122$ ). 남자 집단은 자아존중감이 자립기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나( $\beta=.179$ ) 여자 집단의 경우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beta=.22$ ).

남녀 집단으로 나뉘어서 분석해 본 결과 남자는 전체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여자 집단은 자립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남자 집단은 교사지지와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자립기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자 집단의 경우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자립기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8&gt; 남녀 집단의 경로계수

| 구분            | 남자       |         |       |         | 여자       |         |       |        |
|---------------|----------|---------|-------|---------|----------|---------|-------|--------|
|               | 비표준화 추정치 | 표준화 추정치 | 표준 오차 | 검정 통계량  | 비표준화 추정치 | 표준화 추정치 | 표준 오차 | 검정 통계량 |
| 자립 기술 ← 부모 지지 | 0.001    | 0.004   | 0.024 | 0.061   | 0.004    | 0.011   | 0.053 | 0.071  |
| 자립 기술 ← 친구 지지 | 0.042    | 0.095   | 0.028 | 1.485   | 0.018    | 0.038   | 0.079 | 0.222  |
| 자립 기술 ← 교사 지지 | 0.099    | 0.242   | 0.026 | 3.87*** | 0.047    | 0.122   | 0.052 | 0.905  |
| 자립 기술 ← 자존감   | 0.077    | 0.179   | 0.026 | 2.939** | 0.104    | 0.22    | 0.054 | 1.924  |

\*\*  $p<.05$ , \*\*\*  $p<.001$



#### 4. 최종 학력 집단 결과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 그리고 자립기술의 관계에 있어서 학력에 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수집된 자료를 중졸 이하(초졸, 중학교 유예, 중졸), 고교 중퇴, 고교 졸업으로 나눠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최종 학력에 따른 기술통계 결과

<표 9>의 결과들을 보면 사회적지지의 세 하부요인인 부모지지, 친구지지 및 교사지지에 있어서는 중졸 이하와 고교 중퇴간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지지의 경우 고졸 집단보다 중졸 이하와 고교 중퇴 집단이 높게 나타났으며, 친구지지와 교사지지는 중졸이하와 고교 중퇴 집단보다 고졸 집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에 있어서는 고졸(M=3.83), 고교 중퇴(M=3.66), 중졸 이하(M=3.55) 순으로 고졸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자립기술의 평균점수는 고졸(M=2.29), 고교 중퇴(M=2.27), 중졸 이하(M=2.17) 순으로 고졸과 고교 중퇴 집단 간에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이 두 집단과 중졸 이하 집단 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최종학력에 따른 평균과 표준 편차

| 구분               |      | 부모지지 | 친구지지 | 교사지지 | 자존감  | 자립기술 |
|------------------|------|------|------|------|------|------|
| 중졸 이하<br>(n=143) | Mean | 4.25 | 3.87 | 3.62 | 3.55 | 2.17 |
|                  | SD   | 0.77 | 0.74 | 0.74 | 0.69 | 0.32 |
| 고교 중퇴<br>(n=115) | Mean | 4.29 | 3.86 | 3.64 | 3.66 | 2.27 |
|                  | SD   | 0.85 | 0.72 | 0.86 | 0.71 | 0.32 |
| 고졸<br>(n=102)    | Mean | 4.18 | 3.99 | 3.77 | 3.83 | 2.29 |
|                  | SD   | 0.96 | 0.65 | 0.74 | 0.72 | 0.29 |

##### 나. 최종 학력에 따른 경로분석 결과

학력에 따라 경로를 살펴본 결과, 부모지지(중졸 이하  $\beta=.003$ , 고교 중퇴  $\beta=.006$ , 고졸  $\beta=.024$ )와 친구지지(중졸 이하  $\beta=.067$ , 고교 중퇴  $\beta=.017$ , 고졸  $\beta=.172$ )는 자립기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 교사지지는 중졸 이하( $\beta=.184$ ), 고교 중퇴에

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나( $\beta=.253$ ), 고졸( $\beta=.170$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아존중감은 중졸 이하( $\beta=.278$ )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나, 고교 중퇴( $\beta=.057$ ), 고졸( $\beta=.131$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력집단으로 나뉘서 경로를 분석해 본 결과 중졸 이하에서는 교사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자립기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고교 중퇴는 교사지지가 자립기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고졸에서는 자립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10> 최종학력에 따른 경로계수

| 구분    |          | 자립기술      | 자립기술      | 자립기술      | 자립기술     |
|-------|----------|-----------|-----------|-----------|----------|
|       |          | ←<br>부모지지 | ←<br>친구지지 | ←<br>교사지지 | ←<br>자존감 |
| 중졸 이하 | 비표준화 추정치 | 0.001     | 0.029     | 0.079     | 0.128    |
|       | 표준화 추정치  | 0.003     | 0.067     | 0.184     | 0.278    |
|       | 표준오차     | 0.038     | 0.039     | 0.039     | 0.039    |
|       | 검정통계량    | 0.028     | 0.735     | 2.008*    | 3.252*** |
| 고교 중퇴 | 비표준화 추정치 | 0.002     | 0.008     | 0.094     | 0.026    |
|       | 표준화 추정치  | 0.006     | 0.017     | 0.253     | 0.057    |
|       | 표준오차     | 0.041     | 0.048     | 0.039     | 0.043    |
|       | 검정통계량    | 0.056     | 0.159     | 2.396*    | 0.592    |
| 고졸    | 비표준화 추정치 | 0.007     | 0.077     | 0.066     | 0.053    |
|       | 표준화 추정치  | 0.024     | 0.172     | 0.170     | 0.131    |
|       | 표준오차     | 0.031     | 0.051     | 0.041     | 0.042    |
|       | 검정통계량    | 0.238     | 1.511     | 1.619     | 1.270    |

## VI. 결 론

본 연구는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자립기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보고, 자립기술과 관련된 성별 및 학력별 차이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자립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교사지지와 자아존중감은 청소년 재소자의 자립기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보호소년의 부모지지와 친구지지는 자립기술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또는 친척과의 경험이 보호소년의 자립기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장경희(2008)의 연구와 일치하는 반면, 대상은 다르나 친구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고, 긍정적인 정서경험이 많을수록 학교생활 적응력이 높아진다(구지은, 2000; 이진아, 2007)는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따라서 보호소년의 자립기술능력 증진을 돕기 위해서는 소년원 직업훈련교사의 적극적인 지지를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의 전략과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보호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데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둘째, 보호소년의 사회적지지(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와 자아존중감에 대한 상호관련성을 검증한 결과 부모, 교사 및 친구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지지를 많이 받은 보호소년들이 사회적지지를 적게 받은 보호소년들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보호소년은 제한된 사람과의 교류로 인해 사회적지지가 폭넓지 않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거나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에서나 소년원에서 부모 형제 외에도 보호소년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과 맺어 주는 사회적 네트워크(멘티-멘토의 관계망)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의 다양한 청소년 지원기관들이 청소년 출소자에 대한 포용 및 지지 분위기를 조성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 그리고 자립기술의 관계에 있어서 성별에 의한 차이를 살펴 본 결과 남자 집단은 교사지지와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자립기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여자 집단의 경우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자립기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소년의 자립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성별, 가족 유무 및 가족과의 연락유무, 진로결정 여부 등의 특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변숙영·이수경·김지수, 2013)를 지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소년의 자립기술은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성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자 집단의 경우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자립기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결과에 기초해 볼 때 보호소년들의 경우 자립기술과 관련하여 부모, 교사, 친구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자아존중감이 증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상은 다르나 미국의 경우 소비자에 의해 운영(consumer-controlled)되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운영위원회의 과반수와 직원 중 한명은 장애인일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김동호, 2002, 재인용). 즉 자립센터의 운영철학에 동료관계 및 동료 간 역할모델발

전을 중시하고, 장애인 동료들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있어, 동료와 소년원 퇴소 후 자립에 성공한 동료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운영지침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성별에 따른 동료 지지 프로그램도 보호소년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 그리고 자립기술의 관계에 있어서 학력에 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수집된 자료를 중졸 이하(초졸, 중학교 유예, 중졸), 고교 중퇴, 고교 졸업으로 나눠서 분석한 결과, 중졸 이하에서는 교사지지와 자존감이 자립기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고교 중퇴는 교사지지가 자립기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고졸에서는 자립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사회적지지에서 교사지지만이 보호소년의 자립기술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학력이 중졸 이하와 고교 중퇴인 보호소년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고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중·고등학교에서 교사와의 관계 경험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때 학생들은 비행에 빠질 수 있게 되고, 특히 학업중단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경우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이 크다. 그러나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는 대부분 입시위주의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업 문제 이외에 다른 문제들로 인해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울 때 교사로부터 실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년 이내 출소를 앞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주민희(200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연령별, 학력별 생애진로분석 결과 학력에 따라 자아정체감이나 진로계획이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소년을 가르치고 있는 소년원학교는 수감생활 중에 중단된 학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기관이지만, 보호소년의 특성을 감안한 교육과정의 운영과 교수 학습 전략 및 방법이 요구된다. 특히 보호소년 중 학습부진아와 학습장애를 보이는 소년원생들에게 기초학력 신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소년원학교도 성인 수형자를 수용하고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는 교정시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 즉 전담관리 인력의 부족과 직업훈련교사의 전문성 부족, 직업훈련 시설과 예산 부족 등과 같은 동일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김기홍·김선태·최은하·이연담, 2010). 따라서 소년원학교도 성인교정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처럼, 특화 소년원으로 전문화하여 운영하고, 충분한 전담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보호소년들이 원하는 자립기술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년원의 직업훈련 과정 중 인기가 있는 과정은 제과·제빵, 헤어디자인, 용접 등이며, 주로 취업이 용이하고 보수가 많은 직종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종과 더불어 직업 안정성과 만족도가 높은 직종들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을 담당하는 일반교사나 직업훈련교사는 이들 보호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문제 성향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보호소년 개개인에게 적합한 교육지원을 해야 한다.

둘째, 보호소년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은 결국 자립기술의 습득이나 일반교육에 대한 성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년원학교의 일상생활이 고립된 섬이 아닌, 일반학교의 연속이며 사회생활적응을 위한 준비기간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보호소년들이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해 습득하는 자립기술은 퇴소 후에 바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훈련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호소년이 출소 후 바로 취업해야 하는 연령대인 만 18세 이상과 고졸의 학력을 가진 경우, 각 소년원에서는 성별이나 개인 특성에 따라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화해야 취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보호소년 스스로의 직업 경력관리와 취업유지율을 높일 수 있는 개별화된 진로지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호소년의 퇴소 후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위해 다양한 정서적·심리적 지원은 물론 취업알선과 개별화된 진로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소년원학교에서 보호자 교육 강화, 즉 부모 및 가족 교육의 강화를 통해 건전한 가족 형성을 위한 인성교육도 중요하다. 따라서 소년원 보호기간 동안에 부모와 가족이 일정한 교육에 참여하여 보호소년에 대한 이해와 재범을 막기 위한 상담과 치료교육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반학교의 학생과 달리 범죄와 비행을 통해 소년원이라는 제한된 환경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자립기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차이를 성별과 학력에 따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들의 차이가 자립기술의 7가지 하위요인에 따라 어떠한 영향력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김봉화(2010)의 연구에 의하면, 동일한 연령대라 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하위요인의 중요한 순서가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관련 연구에서 내재적 특성과 외재적 특성을 포함한 개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호소년의 자립기술 하위요인의 영향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국가인권위원회(2005). 『청소년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연구』.
- 구지은(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 적응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지원(1998). 『청소년 비행 관련 변에 대한 메타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홍·김선태·최은하·이언담(2010).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 실태 및 개선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대권(2010). 『소년원생의 수용생활과 교육에 대한 인식조사연구』, 『한국교정학회소식』 47, 173~199쪽, 한국교정학회.
- 김동호(2002). 『자립생활 패러다임에서 본 한국 장애인 복지관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6권, 91~117쪽,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김봉수·강동욱(2012). 『소년법에 대한 교정보호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소식』 57, 187~207쪽, 한국교정학회.
- 김봉화(2010).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기술 및 자립지원에 관한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제8권 제3호, 43~58쪽, 한국청소년시설학회.
- 김상미·남진열(2011).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제8권 제4호, 225~241쪽, 미래청소년학회.
- 김진화(2004). 『청소년 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노 혁(2004).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복지지원 방향 - 생활 및 자립 지원시설 실태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1권 제1회, 100~102쪽, 한국청소년학회.
- 민원홍(2014).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2호, 265~290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은선(2004).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생활 준비를 위한 일반주의 실천접

- 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실천』, 4권,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센터.
- 법무부(2013). 『범죄예방 정책국』.
- \_\_\_\_\_ (2014). 『보호소년법』.
- 변숙영·이수경·조은상(2012). 『시설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훈련』,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 변숙영(2013). 『시설아동의 자립기술과 직업기초능력』, 『소년보호연구』 22, 한국청소년 정책학회.
- 변숙영·이수경·김지수(2013). 『소년보호기관 직업훈련 실태 및 개선 방안』,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 신혜령(2001). 『시설 아동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혜령·김보옥(2011). 『시설아동의 자립지원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제8권 제1호, 29~49쪽, 미래청소년학회.
- 안선영(2010). 『소년원생 재범방지를 위한 소년원 교육 효과성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안윤숙(2012). 『보호소년 위탁아동복지 시설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 양숙미(2006). 『정신지체 성인자녀의 부모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한국학술정보.
- 유성경·오익수·안희정·이소래(1999). 『청소년 탈비행과 조력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 전략개발연구』, 한국청소년복지개발원.
- 이명숙(2008). 『청소년 비행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다기관협력체계 구축 방안』,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 이미리(2005). 『청소년기 자아존중감과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변인들의 관계: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자아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2 호, 263~293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미리·이명숙(2010).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비교를 통한 청소년기 비행 관련 생태학적 맥락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제7권 제4호, 67~85쪽, 미래 청소년학회.
- 이진아(2007). 『한부모 가정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 사회적지지 및 아동의 자아탄력 성이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태수(2001). 『시설보호아동의 자립강화방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자립지원정

- 책의 실제와 방향정립-미국과의 비교』, 『한국아동복지학회 제15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아동복지학회.
- 이혜연·서정아·조홍식·정약중·김귀랑(2007).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경희(2008). 『시설청소년 자립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2009). 『청년심리학』, 박영사.
- 정진수·김기환·유병철·이창한(2009). 『교정정책과 보호정책의 연계성 강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지은(2013).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및 자기주도학습의 인과적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수연(2011). 『일반가정과 결손가정 청소년들의 사회적지지와 학교적응』,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현빈(2003). 『청소년의 법의식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주민희(2004). 『단기 잔여형량 수형자의 특성별 생애진로분석』,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인·염건령(2005). 『합리적 범죄선택이론』, 백산출판사.
- 한상철·이수연·임순선·류수현·김우철(2012). 『청소년 심리 및 상담』, 정민사.
- Ansell, D., Morse, J. & Nollan, K.(2004). *The Skills Guidebook*. Seattle, WA: Casey Family Programs.
- Arnett, J. (1992). "Reckless behavior in adolescence: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Review*, Vol. 12, pp. 339~373.
- Bartol, C. R and Bartol, A. M. (2012). *Criminal Behavior: A Psychological Approach (10th Edition)*, NJ : Prentice Hall.
- Mech, E. V. (1994). "Preparing Foster Youth for Adulthood: A Knowledge-building Perspectiv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16, pp.141~145.
- Rosenberg, M. (1985).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in R. L. Leady (eds.), *The development of the self*, pp. 205~246, FL : Academic Press.
- Spencer Rathus(1988). *Understanding Child Development*, NY : Holt McDougal.



Abstract

---

Relationships among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Independent living skills of Juvenile Reformatory Inmates'

Kim Ki-hong  
Kim Gyeong-ju

This study looked into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protected juvenile's independent living skill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by verifying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n independent living skills, it was found that teacher support and self-esteem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a juvenile inmate's independent living skills. Second, by verifying the correlation between protected juvenile's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parents, teacher, and friend support, the higher the self-esteem. Third, by looking into the differences by gender in the relationships among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independent living skills,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teacher support and self-esteem, the higher the independent living skills of a male group. Fourth, teacher support and self-esteem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independent living skills of the inmates whose educational background was middle school graduation and lower.

**Key word:** Juvenile Reformatory Inmates, Independent living skills, Social support, Self-esteem

